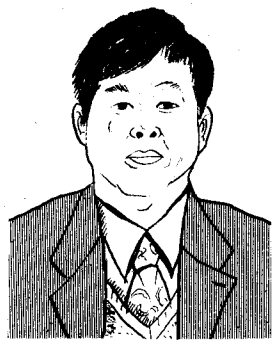


대학사회에 내는 도전장

3월주제
'신입생'

옛날 신입생을 보면서 심오 특년 전의 나의 모습을 떠올린다. 싱그러운 신입생의 얼굴 위에 신출내기교수의 얼굴이 겹쳐져서 페이퍼처럼 아롱져 있다.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잡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던 그 시절, 대학, 그것은 생활의 수단을 준비해내는 공장이고,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빚어내는 삶의 치열한 수련장이며, 새로운 것을 갈구하던 영혼이 지식을 사랑하는 지성의 토론회장이 되어야 했으리라.

과 현실형(Reality)은 어떠한가? 타락한 정치배의 논리가 대학에 종미하고 있다. 민주화란 이름하에 민주주의가 발판이 되고 있는 밑바탕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선배들은 갖 들어온 후배들에게 술을 권하면서 "방학하라 그리고 방학하라 그



강희원
(법대교수·법학)

노력없는 육체의 단순한 호
느적거림은 방황이라고 할 수
없고 고민없는 거동은 결코
자기 실천이라 할 수 없다

리고 끝까지 철저히 방황하라"고 외치고 또 고민하면서 되풀이 불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대열에 동참하여 실행하라고 부추긴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낙엽이 바람에 휘둘러 거리를 휘둘러 돌 듯 해매는 생활을 하란 말인가? 정녕 대학은 방황의 여행 출발하는 시발점인가? 아니면 동작만 흉내내는 공연장인가? 물론 대학인이 현실에 참여

하고 비판하고 행동으로 저항하는 것은 허용되고 또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가 대학에 있는 동안은 이 모든 것은 학문 연마 보다 우선할 수 없고, 최소한 학문연마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피와 살을 깎아내는 노력없는 육체의 단순한 호느적거림은 방황이라고 할 수 없고, 고민없는 거동은 결코 자기실천이라 할 수 없다. 진정한 방황의 의미를 터득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의 전부를 쏟아부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밤새우고 또 밤을 새워 고민해야 한다.

대학의 입학은 분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법률상의 어른이 된다. 학문을 통하여 정신을 살려주고, 장래의 직업을 위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대학 바깥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여러분은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 개인으로서 인간은 자기의 생활수단(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참가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서투른 낭만(?)은 순간이고 후회는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된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한정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신입생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도전장을 자신있게 던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꿈을 그려보라!



혼란한 인간비와 여유있는 넉넉함을 간직한 김윤영(신방·78졸) 동문을 본고 신방대학원에서 만나보았다.

현재 문화방송 교양제작국에서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문은 그동안의 작품중 "지리산"을 다룬 "자연 다큐멘터리"와 "정신건강 음악회" 그리고 광주합창단의 진실을 담은 "어머니의 노래" 등이 가장 애착이 가고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라며 장박으로 눈길을 보내면서 당시 프로그램 제작상의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지금 돌아보면 저의 대학생 생활은 약간은 건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다 하는 미팅 한 번도 못했으니까요"라는 김동문은 본고 시청각교육원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방송에 취미를 붙인 것이 오늘의

— 김윤영(신방·78졸) 동문을 만나

자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요즘 근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인도를 다른 4차기화다큐멘터리 '인디아'를 편집하고 있다"라며 바쁜 와중에서도 늦게나마 공부에 대한 열정을 저버릴 수 없어서 본고 신문방송대학원에서 방송전공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동문이기도 하다.

"한 작품마다 사실과 진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주변의 진솔한 삶에 대해 다루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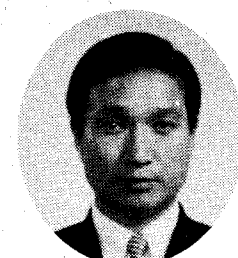
"방송일을 하는 동안 내가 혹시 허공에 대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외로움이 월지나 바닷가의 파도처럼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며 남모르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한 작품마다 사실과 진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주변의 진솔한 삶에 대해 다루고 싶습니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작년 10월까지 4대 PD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했던 김동문은 연합회 활동에 대해 방송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그리고 "자유가 제약받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방송인들에게서 인간적인 애정을 느끼게 되었죠"라며 계간지인 '방송시대'를 만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통한다.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비교하면 분위기도 많이 변했고 여러 분야에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후배들의 생각이나 행동들이 양극화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듭니다"는 김동문의 충고는 우리들의 뒤를 돌아보게 한다.

시청자들의 많은 방송비평에 관해 방송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해오는 비평들의 경우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선 비평이 수용될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사회적 공신력을



미있습다. PD라는 직업이 며칠씩 밤을 새는 등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단점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방당한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라는 사명감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라며 지금의 일에 만족하고 있음을 비쳤다.

79년에 결혼해서 현재는 두 딸의 아버지이기도 한 김동문은 후배들에게 "사회는 학교와는 달리 곳곳에 어려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아낄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강의실로 향했다. <賢>

애지원 운영상 낙후성 노출

구체적 대안 마련으로 원생복지 힘써야

집을 떠나 생활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궁핍하게 되고 특히 생활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기숙사를 짓고 원생들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숙사에는 어려운 사람이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율과 체계가 있어야하고 하나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학교도 애지원이라고해 남학생 316명, 여학생 88명, 128명의 운동선수들 총 532명의 애지원생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 모두 집을 떠나 하나의 보금자리인 애

지원에 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집을 대신해주어야 할 애지원의 복지시설은 하숙집과 지극히 보잘 것 없는 것 같다. 식권 같은 경우에는 한달내에 정해진 양을 소액에 내야한다. 즉 다음달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식수 또한 식당에 있는 물을 먹어야하고 4명에서 한방을 쓰고 있는 곳에는 먼지가 많이 감기등 질병에 걸리기 쉽다.

또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낡은 세탁기는 애지원생의 불만을 한층 높인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원생들을 생각해 애지원에서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원생 복지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

김상훈
<국제관계학·1>

열람실 사용에 어려움 양보하는 마음 필요

'취업'이라는 단어를 먼 나라의 이야기로 생각했던 나에게 대학 4학년은 취업의 명으로 나를 열어 매었다.

나 나름대로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을 요즘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도서관 열람실에 도착해도 열람석을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나 보다 부지런하고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에게 의외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나의 게으름을 탓할 텐데 그게 아니다.

친구들의 부탁을 받아 자기의 책을 열람실 좌석 여가저기에 놓아 다른 학생이 앉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열람실을 장시간 비우는 행위, 개인용품을 그전날 남겨 놓아 다음날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행위 등이 내가 열람실 좌석을 얻지 못하는 뚜렷한 이유 일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인 각자는 공부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양보하는 마음과 양과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의 사조를 스스로 봉쇄시키는 노력을 할 때인 것 같다.

신중식
<정치·1>

박종일
<철학·4>

젊은층의 투표참여 민주주의의 초석

소중한 한표행사로 사회발전 기여해야

14대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68년 6월 11일' 민자당 '집권'과 '남북' '민주정부 수립의 날',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선택' 등 갖가지 구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각계 총선대응 진영의 마지막 선거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광역의회 선거이후, 전체 유권자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갖가지 선거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간간히 일간지에서 발표되는 '젊은층 61% 투표에 참여한다'는 결과는 지극히 아쉬운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마저 들게 한다.

모든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선거정보도, 공무원, 회사원, 학생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원되는 유세장, 실로 총체적인 선거 난국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대학생은 돈에 눈이 멀어 이곳 저

곳 끌려다니고 노동자도 당원이 되어 활동하는 등 경제가 흔들리고, 정도도 온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모두가 기대하는 건 20~30대의 투표율이다. 그 만큼 20~30대의 망쳐진 사회를 바로 잡을 수도, 그리고 후진기에 버려진 참미꽃 민주화를 활짝 피게할 수도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계층이다.

선거참여 배치달기운동, 각 정당 당의 젊은층 복지이익 공약, 설문지 결과등 이런 총선의 결과를 다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요소들은 사회 곳곳에 다분하다.

하지만 냉철히 생각해 보면 젊은 유권자들은 아직 정치권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가장 본질적인 정치권의 근본 변화없이 표피적이고 외면적인 선거참여홍보만으로는 젊은층의 허무의식을 치유

하기엔 너무 역부족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 젊은층도 사회 현실에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구성원의 일원으로 책임을 지어야한다. 왜냐하면, 이 땅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나와 무관한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지성의 의무인 것이다. 달은 차면 기운다. 하지만 이는 저절로 기우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운동이 기운을 만드는 것이다. 6공 정권은 기울어간다. 그리고 그 역동력은 젊은층의 투표참여이다. 또한 지금은 투표참여에 고민할게 아니라 개혁을 내딛는 민중의 위대한 역량을 감상하고 있을 때이다.

오는 선거일 투표에 꼭 참여하자.



말해볼시다
말해볼시다의 경회각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화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전화: 2002-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신입생 이기주의의 심각

며칠전 일이었다. 강의후 과대 표가 앞애나가 공과가 있으니 잠시 앉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곧바로 상당수가 자리를 뜨는 바람에 무시되고 말았다. 아마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적지않은 곳에서 일어나리라 짐작한다.

Freshmen이라고 표현될만큼 순수한 대학1년생이 개인주의, 아니 이기주의에 빠져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 몇분이란 시간조차 내줄 수 없다는 알박박보다

는 지금 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가증스러운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태를 갈은 신입생으로서 어떻게 시정해 나가야할지 안타깝기만 하다. 바라다보면 우리의 생각을 한발자욱 앞보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꺼하는 조그만 바람이다.

최성희
<경제·1>

Your Guarantee of Quality...

The ELS Guarantee

Your ELS Language Centers intensive English Course has been carefully designed to help you learn the language quickly and effectively. We are confident that once you have successfully completed Level 109 of our program, you will have the language skills needed to reach your academic or professional goals.

If after leaving the ELS program you feel that lack of English proficiency is significantly hindering your academic or professional progress, ELS will allow you to return to our intensive English Course and study free of tuition. You may do this anytime within six months after your departure from ELS, and for whatever additional period of time you feel is necessary.

At ELS, we want you to succeed!

Perry S. Atkins, President

ELS[®] SEOUL

ELS는

English Language Services의 약칭이며, 미국의 권위있는 영어학자들 주축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수 방법의 연구 및 교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영어교육, 연구기관입니다.

ELS Language Centers는

ELS가 직영하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영어교육 기관으로서, 미국내에 21개의 ELS Centers와 29개에 달하는 본교를 전세계에 갖고 있는 명실 상부한 최고의 영어교육기관입니다.

ELS는

본부를 LA에 두고 있으며, 30년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교육 Program을 갖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ELS 강남 565-0509 ELS 종로 278-0509 ELS 서초 585-0509

21 USA LOCATIONS

• ATLANTA • BOSTON
• NEW YORK CITY(2) • NORMAN
• ST. PETERSBURG • SAN DIEGO

• CHICAGO
• OAKLAND
• SAN FRANCISCO

• CLEVELAND
• OKLAHOMA CITY
• SANTA MONICA

• DENVER
• PHILADELPHIA
• SEATTLE

• INDIANAPOLIS
• ST. PAUL / MINNEAPOLIS
• WASHINGTON, D.C.

29 INTERNATIONAL LOCATIONS

• SEOUL(3)
• KUALA LUMPUR
• SAO PAULO(5)

• PUSAN
• KOBE(2)
• TOKYO

• OSAKA
• TAIPEI(6)
• KAOHSIUNG

• TAICHUNG
• JAKARTA
• LONDON(2)

• BANGKOK(2)
• BANGKOK
• BANDUNG